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력산업 규제완화의 전망

변종달 / 전우클럽

World Focus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의 한 곳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캘리포니아주는 단독으로도 세계 선진 7개국에 포함될 수 있다)에서 발생한 에너지위기는 무엇인가? 제3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정전상태와 이에 수반한 혼란은 왜 발생하였는가? 우리 전기인들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전력산업 규제완화의 선두를 달리던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계획 정전과 전력회사의 도산 위기는 우리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뼈아픈 전례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誌) 2001년 1월 20일호에서 제시한 전력위기의 원인과 진상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소개한다.

1. 원점으로 되돌아간 전력산업 규제완화

2001년 1월 16일 캘리포니아 주(州)의회는 주(州)정부에게 현지 전력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1996년 중반에 개시된 전기사용 고객들에게는 요금의 인하를, 사업체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그리고 전력회사들에게는 보다 큰 시장을 마련하겠다는 아주 멋진 약속을 한 캘리포니아 전력산업의 규제완화를, 이들을 시작한 이전의 시점으

로 시계바늘을 되돌려 놓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주(州)는 옵션을 몇 개 갖고 있지 못하다. 같은 날 두 개의 캘리포니아의 큰 전력회사들은 그 중의 하나인 사우스 캘리포니아 에디슨(SCE)이 “현금보존”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5억 9600만달러를 지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에 그들의 신용등급은 선도적인 신용사정 기관으로부터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하향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신용의 하향조정은 그 주(州)의 다른 큰 전력회사인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PG&E)의 신용 전력구매 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그들을 도산의 벼랑으로 밀어붙였다. 같은 날 수요전력에 대한 예비전력

의 여유가 1.5% 이하로 내려갈 때에 발령되는 최고수준의 경보인 “스테이지 3”의 비상사태가 발령되었다. 1월 17일에는 PG&E의 공급구역인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한 시간씩 윤번제 정전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주(州) 수도국(水道局)에 전력구입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2. 무서운 무질서상태의 발생

이것은 혁신과 역동적인 시장의 모델로서, 미국에서 최초로 규제완화를 추구하였음을 세계에 드러낸 주(州)에서 발생한 무서운 무질서 상태이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실패작인 규제완화 탓이다. 캘리포니아의 규제완화는 소매가격을 동결시켜 놓은 채 도매 전력 가격의 자유화를 제도화한 것으로서 독특하게 나쁜 방법인 것이다. 그 결과 주(州)의 전력회사들은 아주 뜨거운 스폿마켓에서 그들이 전기사용 고객들로부터 전기요금으로 수금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전력을 구매토록 강요당하였다.

비극적인 파국이 이제 어렴풋이 위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주(州)의 주민들은 짜증나는 그리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련의 전압 및 주파수의 강하(브라운아웃)를 이미 견뎌내고 있다. 사실 전력비상 사태는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 되어 아침뉴스의 교통 및 일기예보와 함께 발표되고 있다.

3. 주지사의 협박성 발언

최근에 와서야 현지 정치인들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

였다. 1월초에 주(州) 의회는 전력회사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잠정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승인하였다. 시끄러운 주(州) 소비자단체의 로비활동 끝에 입법의원들은 단지 3개월 동안에 겨우 약 10%의 인상을 승인하였는데 이것마저도 파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전력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요구한 30% 인상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주지사인 데이비스씨는 1월 8일의 “주 현황보고” 연설에서 위기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그는 “우리는 두 번 다시 캘리포니아를 인질로 삼는 주의(州外)의 폭리꾼들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면서 필요하다면 전력설비를 압류해서 주정부가 그것을 가동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의 연설은 전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 나라의 최고 전력 규제 기구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공화당 출신 위원인 커티스 에베르는 “당신들의 지사는 캘리포니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야간 뉴스쇼에 출연하는데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면서 화를 냈다.

4. 신속해결에 실패할 때의 연쇄반응

만일 캘리포니아 전력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실패하면 연쇄반응은 심각해질 수도 있다.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딘 위터는 “캘리포니아의 위기는 전체 경제의 하락세를 과장시킬 수 있다. 결국 주(州)의 에너지위기는 미국 금융시장과 지구경제에 원하지 않는 와일드카드로 작용하게 됨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악영향에 대한 그와 같은 두려움은 물러나는 클린턴 행정부가 왜 주정부와 연방정부 관리들, 전력회사 그리고 그들의 주(主) 전력공급자들 사이의 일련의 고위급 회담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법

틀안이 이번 주에 통과되었으며, 이것이 법으로 성립되면 캘리포니아의 신용위험이 없는(지불능력이 있는) 수자원국이 장기계약으로 추가 전력을 구매하고 이것을 전력회사들에게 현지 스폿마켓 가격의 몇 분의 1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변통에 불과한 것이다. 연방 공직자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장기적인 해결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월 하순에 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5. 곤경에 빠져들게 된 사연

캘리포니아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그와 같은 궁지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10년 전 영국의 성공적인 전력부문 개방에 크게 고무된 캘리포니아는 자유화된 전기시장의 새 세상으로 미국을 인도하였다. 이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는데 몇 년간의 다양한 이익그룹들—큰 전력회사에서 환경단체 그리고 소비자 조직들—간에서 욕신각신의 시비 후에 데이비스씨의 전임자인 피트 월슨은 거의 모든 이익그룹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근거 없는 부수 조항을 갖춘 규제완화의 절충안을 만들어 냈다.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영국의 전력규제 완화는 창조적 자극에 의한 착상이었다. 켐프라(Sempra: PG&E와 SCE보다 나은 재무상태의 샌디에이고 가스 앤드 일렉트릭을 소유하고 있는)의 보스인 슈테판 바움은 “캘리포니아는 경쟁을 신앙으로 그리고 영국모델을 지침서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열광적인 개혁 추진자들은 캘리포니아와 영국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예를 들면 예비용량과 같은 분야—를 고려하지 않고 일을 추진시킨 것이다. 유럽에서는 규

제완화가 신뢰성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크레디트(영예)는 유럽의 개혁모델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다용량에 있는 것이다. 유럽의 틱헤비(자본과다)의 국가 지배적인 전력부문은 그들의 자산(어쩔 수 없는 고객이 지불하는 높은 요금을 통해서)은 금도금을 한 것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그와 같은 행복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6. 포크 배럴 정치가 소매시장 발달을 억제

두 모델 사이의 차이점은 캘리포니아 공직자들은 포크 배럴(연방의회 의원이 선거구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계획한 지방 개발에 자금을 보충하는 정부의 특별 회계) 정치가 소매시장의 발달을 억제시켰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가격이 오르내리게 허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몇 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추측컨대 이것은 전기사용 고객의 환심을 사기 위한 배려였다. 그러나 그것은 도매전력 가격이 최근에 발생한 것과 같이 급등하였을 때조차 전기사용 고객들로 하여금 전기사용을 절감해야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우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큰 전력회사들의 압력을 받아 주(州) 정치인들은 “회수불능 자산”—갑자기 게임의 규칙을 바꾼 규제완화 이전에 건설된 대규모 발전소와 같은—에 대하여 회사들에게 너그럽게 보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겉으로는 충분히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州)보다 이들 자산에 대하여 보다 더 넉넉한 가격에 합의한 것이다. 더 나빴던 것은 공무원들이 이 “회수불능 자산”의 비용의 일부를 전력사업의 새로운 참여자들에게 부담시키기로 결정한

사실이다. 따라서 신참자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흑독하게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7. 규제완화의 정도

몇몇 다른 주(州)들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잘못을 피해왔다. 예를 들면 텍사스에서는 변하기 쉬운 가격의 리스크에 대한 방어책으로 회사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신참자들로부터의 자극을 받는 경쟁으로 크게 성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들 중에서 아무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펜실베이니아의 경우와는 달리 소매 전력공급자로의 전환이 어렵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주민들의 4분의 1이 소매전기 판매회사를 바꾸었다. 캘리포니아의 “규제완화”는 결국 전력부문에 있어 주(州)의 축쇄를 매우 적게 푼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8. 사태를 위기로 몰아간 장애물들

주(州)는 설익은 반(半)영국형 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동안 일을 뒤죽박죽으로 끌어갔다. 사태를 위기로 몰고 가는 데 공모한 캘리포니아 특유의 영향력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장애물은 새로운 전력공급시설에 대한 격렬한 반대, 전력수요의 극적인 증가, 그리고 특별히 정치인들에 의한 공공의 이익보다 정치적 배려로 주는 보조금과 인기주의이다.

우선 주(州)의 전력공급 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어두웠다. 새 발전소 건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기가 없

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하이퍼(초슈퍼) 민주주의적 투표절차의 덕택으로 유명한 “NIMBY(내 집 뒷마당에는 안돼)” 증후군이 터무니없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 주(州)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보호법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발전사업을 매력없는 것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였다. 환경주의자들이 열광적으로 날뛰고, 이웃들이 이기주의로 무뎠다. 한편, 관료주의와 규제의 불확실성이 이성을 잃은 결과 주(州)의 전력회사들은 과거 10년 동안 새 발전소를 하나도 짓지 못하였다.

9. 위기초래의 결정적인 요인들

그러나 주(州)의 전력수요는 지분을 뚫고 치솟아 올랐다. 10년 전에 만든 공식적인 수요예측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캘리포니아의 전력소비는 지난 1990년대에 4분의 1이 증가하였다. 수요를 촉발시킨 가장 극적인 요인은 북부 캘리포니아에 많이 산란(産卵)된 디지털 혁명이다. 컴퓨터에 소비되는 전력은 마이크로칩 제조로부터 카푸치노(에스프레소 커피에 뜨거운 우유를 탄 것으로 종종 시나몬을 넣고, 거품이 있는 크림을 얹어 먹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퍼져나가게 됨으로써 캘리포니아는 경제전문가들과 주(州) 정부의 공직자들이 인터넷과 “신 경제”는 필연적으로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한 수요예측을 무시하였다. 실리콘 벨리의 심장부인 샌호세에서는 전력소비가 연간 약 8%의 성장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인은 캘리포니아의 색다른 정치였다. 정치인들과 규제당국은 개혁절차를 번덕스럽게 그리고 반생산적으로 가지고 놀았다. 지난 여름 전력도매

자유시장의 공급력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에 놀란 공직자들은 겁에 질려 이들 가격에 “상한가” 설정을 지시하였다. 예견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상한가는 비참하게 실패하였으며, 이 사실은 보다 최근의 공급력 팽박(逼迫)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10. 시장(市場)의 힘에 대한 신뢰 부족

공급력의 부족으로 전력 가격은 치솟아 올랐으며, 여기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은 몇 년 전 여름 비슷한 가격상승을 겪었을 때 중서부 주(州)에서 한 것과 같이 시장이 여기에 반응토록 하는 것이다. 그들은 도매 시장에 공연히 간섭하지 않았으며 발전사업자들은 가격신호에 따라 공급력을 급하게 추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던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위기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가장 어렵게 만든 실패는 규제기구 자체 내에 있다는 것이다. 어떤 때에는 그들은 시장의 힘을 전연 신뢰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그들은 실제로 전력회사들이 그들의 가격 리스크를 파생복합상품 구입으로 방어하려는 것을 단념시켰다. 왜 주(州)의 전력회사들이 이제 파산의 벼랑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큰 바보짓이 스폿마켓에서 전력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11. 정신분열증과 집중사니 구조개혁

그러나 또 다른 때에 규제기구는 천진난만하게 시장이 과도(過渡)한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면 영국이 규제완화되었을 때 그 가격결정

메커니즘은 전력공급자들에게 예비용량을 설치토록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보다 타이이트한 시장으로 규제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제기구는 그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이 자체적으로 적절한 공급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데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이와 같은 기묘한 거동은 캘리포니아의 구조개혁이 얼마나 뒤죽박죽 되게 미봉책이었으며, 명백하게 경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에 반(反)하는 조항에 의한 잠동사니인지를 설명해 준다.

주(州) 전력회사가 붕괴될 위협에 처하자 주(州) 또는 연방정부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라며 사회 곳곳에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FERC의 현 위원장인 제임스 웨커는 “캘리포니아의 시장은 분명히 제도설계 결함이 있다. 이것을 교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12. 전력회사를 도산시켜야 한다는 의견

클린턴 행정부가 어떤 도움을 제시하여야 했다. 이임하는 에너지장관인 빌 리처드슨은 지역에 대한 가격상한 설정을 오랫동안 옹호하였다. 웨커씨는 이들 상한가 설정이 실행하기에 너무나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도 또한 캘리포니아 위기가 사실상 “대부분 내륙주(內陸州)에 있는 전력판매자와 대부분이 해안에 있는 전력구매자들간의 매우 큰 싸움”이라는 바탕에 입각해서 지역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리처드슨씨와 웨커씨는 모두 이번 주말에 자리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조지 부시 신임 대통령에 의해서 선정된 인사가 그

들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연방정부의 서투른 개입에는 반대 입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州)를 이와 같은 무질서로부터 빼내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의 옵션은 전력회사들을 도산하게 내버려두는 것이다. 시장을 이해하는 몇몇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나 도산하는 회사들은 항상 있다는 면을 지적한다. 정치문제는 제쳐놓고, 왜 전력회사는 안 되느냐? 그와 같은 목소리는 파산법정, 주정부 또는 최종적으로 이들 전력설비의 새 관리자들에 의해서 전등은 물론 계속해서 켜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13. 무능하고 일을 잡친 정치인들과 규제기관

이것은 파산을 부추기는 논쟁이다. 그러나 왜 파산이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SCE의 모회사인 에디슨 인터내셔널의 톰 히긴스는 주장한다. “현재의 상황은 정부의 조치와 무위(無爲)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이다. 이것은 경영실패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전력회사의 설비에 어느 누가 새로운 관리자가 되더라도 현재의 캘리포니아 규제완화 제도의 모순된 조건하에서는 제대로 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른 옵션은 주(州)가 부정적(否定的) 반응을 취함으로써 전력산업을 재 규제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그렇게 거리가 먼 가능성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최고 전력규제기구인 주(州)공익사업위원회(PUC)의 카르 우드는 재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력사업에 주정부가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을 원한다. 우드씨는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조종에서 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육감으로 비행

한다. 그러나 우리들을 이 무질서 속으로 몰아넣은 첫 번째 원인은 정통적인 경제학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한다. 데이비스씨는 그의 최근의 연설에서 범죄행위와 몰수의 불길한 위협을 암시하였다. 그와 같은 움직임이 배제될 수 없으나 우선 첫째로 기진맥진할 때까지 사태를 끌고 간 무능한 정치인들과 주(州)의 규제기관에게 전력회사 운영을 맡기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것이다.

14.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전기요금

앞으로 전진하는 분별있는 방법은 주(州)정부가 단순히 규제의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을 시간을 벌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으로 인식하고 시장에 기초한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전력회사들의 위태로운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바로 수면으로 부상하게 하는 어떤 단기적인 처방도 현재의 유동성 긴축의 세 개의 별개의 에스펙트(양상)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 즉 어제의 전력에 대한 지불, 오늘의 전력에 대한 지불, 그리고 내일의 전력에 대한 지불이다.

어제의 전력대금은 현재 전력회사들이 은행, 전력생산자 그리고 기타 채권자들에게 지고 있는 120억달러 정도를 말한다. 어떤 해결책이든 채권자들은 정부로부터 언젠가는 그들의 돈을 확실히 받게 될 것이라는 암묵리(暗黙裡)의 또는 명확한 보증을 조건으로 변제(辨濟)의 지연을 허용하는 합의가 포함될 것이다. 이번 주(州)의 입법은 오늘의 전력은 주정부에 의해서 구매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내일의 전력에 대하여는 주(州)정부 조차도 오랫동안 스폿가격을 지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실제로 있었던 수준에 가까운 가격으로 제공되는 장기계약이 불가피하다.

15. 수요감축 및 공급력 증강이 근본 해결책

금년 여름의 첨두부하 기간이 지날 정도로 늦어지면 안 되지만 몇 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에 캘리포니아의 공직자들은 전력시스템을 보다 건전한 기반 위에 올려놓도록 구조개혁을 이룩하여야 한다. 셉프라의 바움씨는 아래 사항에 그들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무엇이 전력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 무엇이 전력공급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가? 공급과 수요의 기본법칙이 파괴되지 않는 한 이들 두 질문에 반드시 대응하여야 한다. 그 나머지는 단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말한다.

캘리포니아는 전력생산을 장려토록 법률을 보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환경적인 규정들이 불필요한 규제일 변도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또한 지나치게 절차에 얽매이는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발전소 승인절차가 미국의 다른 주(공기의 질에 대한 관심이 유사하게 높은 곳을 포함하여)에 비해서 두 배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16. 분산형 전원 등장에 대한 장벽제거

공직자들은 또한 NIMBY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데이비스씨가 제시하는 것으로 연방정부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주(州)들에게는 하이웨이 자금을 보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특별히 방해가 되는 지방에 대하여는 주(州)가 자금 집행을 보류하는 것이다. 보다 좋은 해결책은 분산형 발전의 등

장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담당공직자들이 이 새로운 마이크로파워 플랜트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발전력 증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소비자 시장을 정착시키는 일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화와 경쟁은 기업체들과 가정들에게 똑같이 보다 저렴한 가격의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참된 경쟁적인 소매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가격의 변동으로부터 주택용 고객들을 보호하는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고객들이 가격의 오르내림을 인식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첨두부하시에 그들이 절전하거나 또는 전기사용을 비첨두시로 옮기게 하는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에너지의 부도덕한 소비로 이어진다.

17. 뒤틀린 규제완화를 바로잡는 마지막 기회

시장상황에 따라 소매전력가격을 오르내리게 하려면 주(州) 전체 전기사용고객들이 최신의 정밀 전기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가격의 투명성이 또한 마이크로파워 플랜트들로 하여금 수요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그리드에서 전력을 판매하고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그리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만일 캘리포니아의 정치인들이 오늘의 위기를 뒤틀려 버린 규제완화를 바로잡는 기회로 인식한다면 고통받는 주민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계획이나 목적 없이 되는 대로 해나가거나 횡재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제 옵션이 아니다. 이 주(州)의 책임감 없는 정치인들은 이제 그들이 창조해낸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껏해야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금년은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